

건강한 대한민국의 힘,
우리 축산

축산물·축산업 인식개선 캠페인 발대식

일시 2014. 08. 25(월) 11:00
장소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
주최 축산자조금연합



이병규 축산자조금연합 위원장

(왼쪽부터) 최규혁 한국양봉협회 사무총장, 이강현 한국오리협회 전무, 안영기 계란자조금 관리위원회 위원장, 이홍재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 이병규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 이기수 농협축산경제 대표, 이강우 한우협회 회장, 강성기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 손정렬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 최현주 육우자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



지난 8월 25일 오전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축산물 · 축산업 인식개선 캠페인 발대식 및 기자간담회’가 개최되었다. 오리자조금과 한돈자조금 등 9개 자조금이 모인 축산자조금연합(위원장 이병규)은 축산물과 축산업 인식을 개선하고자 캠페인을 시작하였으며, 자조금연합은 이날 ‘건강한 대한민국의 힘, 우리 축산’이라는 주제로 캠페인 발대식을 열었다.



축산업은 생산액이 16조원에 달하고, 32만 명이 종사할 정도로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만 육식이 해롭다는 인식이 커지고 축산업이 환경오염의 주원인으로 거론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 자조금연합의 설명이다.



자조금연합은 앞으로 다큐멘터리 제작 등 축산물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활동과 함께 어린이 대상 교재 개발, 심포지엄 및 강연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병규 축산자조금연합 위원장은 "축산업의 부정적 시각과 오해로 생기는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축산물의 영양적 가치와 국민경제의 초석으로서 축산업의 역할을 적극 알리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발대식 이후 이어진 강연에서 강재현 대한비만학회 이사는 "동물성 단백질은 우리 몸의 근육 · 장기 · 면역기능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면서 "동물성 단백질을 멀리하면 영양불균형으로 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출처 : 뉴시스, 뉴스1